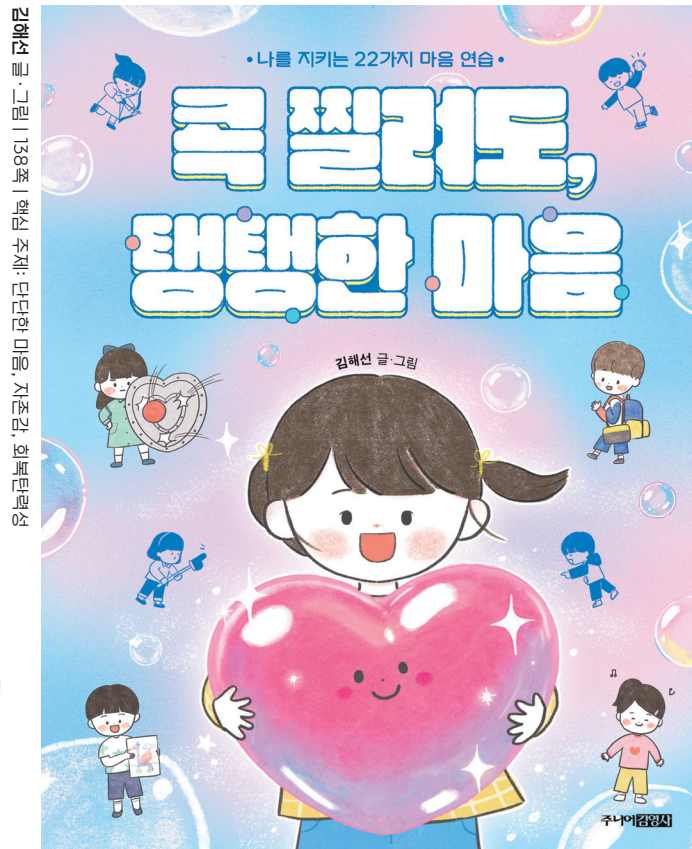


콧 찢러도, 탱탱한 마음

독 후 활동지



마음도 연습할 수 있어요!

학교 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친구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따끔하다고요?
《콧 찢러도, 탱탱한 마음》은 그런 여러분에게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책이에요.
실수투성이인 나를 미워하는 마음, 친구에 대한 서운함, 우울한 하루까지,
22가지 순간들을 보면서 ‘콧 찢러도 금세 제 모습을 되찾는 탱탱한 마음’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교과 연계

국어 1학년 2학기 4단원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2학년 1학기 3단원 마음을 나누어요

국어 1학년 2학기 2단원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국어 3학년 1학기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요

국어 1학년 2학기 6단원 생각을 나타내요





**꼭 쫓아도,
탱탱한 마음**

독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

★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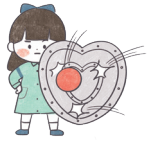
표지 속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을 추측해 보세요. ‘탱탱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의 기분을 적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그때의 기분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예) 상쾌하고 뿌듯했어.

★ 책을 읽으며 생각해요



자꾸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을 '걱정 채널'로 이름 붙이고, 그 채널을 끄는 나만의 방법을 적어 보세요.

그만!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각각의 친구들과 함께하면 좋은 점을 하나씩 써 보세요.

이름	함께하면 좋은 점



친구에게 서운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의 기분을 문장으로 바꿔 말해 보세요.

나는 네가

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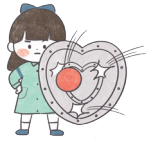
한 마음이 들었어.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 좋겠어.



★ 책을 읽으며 생각해요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을 ‘오히려 좋아!’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오히려 좋아!

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어른들도 마음이 꼭 찢렸던 적이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가까운 어른과 이야기 나눠 보아요.

